

구체적 성과물 없었지만 소통·협치 불씨 살렸다

영수회담 이모저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급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 해결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회담 결과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으며, 향후 소통하기로 하면서 '협치'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말씀하시죠"라고 했다.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15분 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를 담았다.

공개 모두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사용했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 대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이 대표는 현 정부 국정 운영을 두고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므로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

이재명 대표 작심 발언 쏟아내

윤 대통령 "좋은 말씀에 감사"

회담 결과보다 만남 자체에 의미

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와 수행원들을 맞이해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회담장 입구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다가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내내 악수한 손을 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인사의 의미로 이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15분 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첫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총선 민심반영 및 대통령 회담 요청 | 국정 기초 전환 | 국정 운영 부담 관련 | 의료개혁·의정갈등 | 민생 회복 |
|--------------------------------|--|-----------------------------------|---|-------------------------------------|
| 국정기초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 | 과거 행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유감 표명, 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적인 수용 요청 |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 의대정원 확대 등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의료계 논의 제안 |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민생회복 지원금) 수용 요청 |

국힘 원내대표 후보군 눈치싸움...이철규 단독출마 가능성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막판까지도 눈치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서 이가 나타나지 않자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등판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이 되는 박대홍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성일중·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김도읍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

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불참한 채 주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후반 연락해 와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며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책임자를 찾아 추천하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친윤 그룹에선 '이철규 추대론'도 나온다. 이 의원이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구실을 해온 만큼,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당정이 호흡을 맞추는 데 적임이라는 논리다. 이대로 출마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의원이 단독 출마를 통해 사실상 추대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구도로 표 대결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따라 당에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얼미터,尹 지지율 30.2%...3주 연속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2%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에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p) 오른 66.9%, '잘 모름'은 2.8%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2.2%p ↑)를 제외하고 서울(4.2%p ↓), 부산·울산·경남(4.2%p ↓), 인천·경기(3.0%p ↓), 대구·경북(2.8%p ↓) 등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1%p ↓), 50대(3.1%p ↓), 60대(3.0%p ↓), 70대 이상(2.8%p ↓)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3%p ↓), 진보층(1.8%p ↓)에서 내렸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민주당은 0.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3.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HD현대상호

조선업 전문기술 교육생 모집

2024

2024. 05.07(화) ~ 06.10(월)

모집직종

| 기수 | 직종 | 교육기간 |
|------|-------|-------------------------|
| 102기 | 용접/의장 | 24.06.24(월)~24.09.03(화) |
| | 신호수 | 24.06.24(월)~24.07.22(월) |

지원자격

- 성별, 학력, 병역 제한없음, 신체 건강한 자
-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지원 방법 및 일정

- HD현대상호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http://hei.hshi.co.kr>)

| 지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 입교 |
|---------------------------|-------------|-------------|
| 24.05.07(화) ~ 24.06.10(월) | 24.06.17(월) | 24.06.24(월) |

특전

1. 교육비 전액 무료
2. 수료 후 중공업 분야 우수기업 취업 지원
3. 사내협력사 취업 후 1년 만근 시 지원금 300만원 일시 지급
4. 훈련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5. 기숙사 무료 제공 (조/중/석식 포함)
6. 국제 선급자격 취득 지원
7. HD현대상호 직영 생산기술직 채용 시 우대
 - ※ 용접/의장 직종 대상

문의처

카카오톡 | "HD현대상호 기술교육원" 검색
전화상담 | 061-460-2188, 3531

QR코드로 접속하고 카카오톡 상담받기